

“호국불교 아니죠, 호민불교 맞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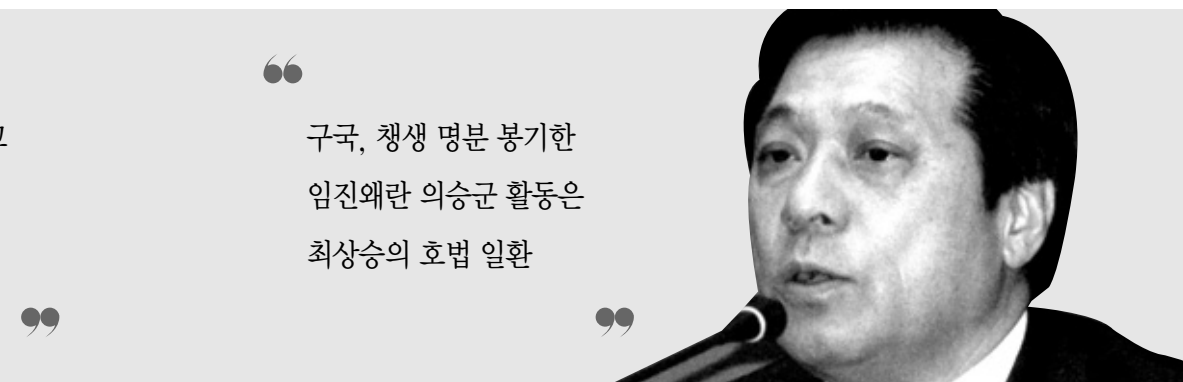


“호국불교는 호정권불교 승군이 칼잡는 이유는 백성과 세상 위함”

서산 등 조선 의승군 조명

“의승군을 단순한 호국불교로 해석하는 것은 널리 생명을 위한 불교를 호양할수있도록 국한시키는 것이다. 호민불교의 입장에서 냉정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의승군에 대한 불교계의 긍정적 시각과 비판적 시각이 동시에 드러났다. 먼저 양은용 원광대 교수는 ‘조선 시대의 국난과 의승군의 활동’ 주제발제에서 조선시대 의승군에 대한 시각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국, 청생 명분 봉기한 임진왜란 의승군 활동은 최상승의 호법 일환”

양 교수는 “의승군 활동으로 불교계가 개편됐다. 의승군 활동은 최상승의 호법이었고 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은 반박 의견을 개진했다. 스님은 “불교사상에는 ‘호국’이란 개념이 없다”며 “호생명, 호민불교의 의미를 민족과 국가의 틀로 한정시키는 것은 편협한 종교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식민화의 길이란 점에서 오히려 역사발전의 가로막는 장애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도 반박했다. 스님은 그렇기 때문에 승군이 경전대신 칼과 활을 잡은 산중에서 벗어나 전장을 누빈 행위는 백성과 세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의승군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왕조시대 불교를 호국불교가 아닌 ‘호생명불교(護生命佛敎)’로 읽어내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최초로 개최된 의승군 관련 학술세미나에서는 △조선시대의 국난과 의승군 활동(양은용 원광대 교수) △서산대사의 의승군 활동(김용태 동국대 연구교수) △조선 후기의 승군제도와 활동(이종수 동국대 연구교수) △서산대사 저항행의 성격과 국가적 의의(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등 4개 주제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예불에 참회의식 강화해야

신규탁 교수, 동아시아의례문화연구소 창립 세미나서 주장

“참회 없는 예불의식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웃어 때가 웃으면 세락하듯 불자가 계를 어기면 참회를 해야 한다. 현행 예참은 출가 중심으로 재가 불자들의 참회를 위한 수계와 결계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로 연구를 시작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규봉종림 선사(원각경도량수증의)를 예로 현행 종단 예불의식에 예참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원각경도량수증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도량법사, 예참법, 좌선법이다. 이중 예불의식의 핵심은 참회의식인 예참법인데 불법승 3보에 예를 올리고 참회하기로 정의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예참은 먼저 계를 받아야 가능한데 재가자는 5계를 받지만 수계와 결계에 대한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신 교수는 “현재 불교계 예불의식의 7정례”가 종단별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현재 불교계 예불문으로 사용되는 ‘7정례’는 1960년 대 이후 조계종에서 정비돼 각 종단에



퍼졌다. 불교 각 교단이 정비돼가는 마당에 각 종지와 종중에 부합하는 예불의식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운 동아시아 의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예불은 부처님을 비롯한 상주삼보와 삼보 중 승보를 네 곳으로 세분해 일곱 배 절을 하고 있다. 이는 상주경이 아닌 예참의 형태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 공모

불교평론이 ‘올해의 논문상’ 공모한다. 불교평론은 만해사상실천선양회와 함께 2007년부터 연구의욕고취와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올해의 논문상’은 우수 논문 1편을 선정해 수상자에게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논문상 대상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게재된 불교관련

논문으로 △해당분야 연구를 선도한 논문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한 논문 △불교사상의 사회적 실천을 고취한 논문이다. 신청방법은 논문이 게재된 간행물 1부와 논문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10월 4일까지 마감으로 시상은 12월 16일 강남구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불교와 심리학의 관계 끝장낸다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은 9월 24일 오후 1~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심리 제2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불교수행과 뇌, 그 치료적 의미’란 주제로 우성배 불교학과 교수와 박성원 서울불교대학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맡은 식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박병운

서울불교대학원대 심신통합치유학과 교수, 조옥경 서울불교대학원대 심신통합치유학과 교수,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학과 교수 등이 각각 발표한다. 사회는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학과 교수와 박성원 서울불교대학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맡는다. 02)890-2854

노덕현 기자

공중사리장엄구 37점 보물 예고

동국사 삼존상 보물 지정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상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5호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을 비롯해 사리비, 사리장엄구 등 성보가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강식)은 9월 5일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7종 37점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일괄 7종은 공중사리탑과 공중사리비와 사리장엄구 등 관련 유물이 결실되지 않고 모두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낙산사 공중사리탑비

일괄 보존돼 높게 평가 조선 후기 장엄의식 기준 승탑행 사리탑은 새 양식

사리장엄구는 조선 후기 사리장엄 의식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공중사리탑은 팔각으로 구성된 조선 전기의 사리탑 양식으로 승탑형 불사리탑이란 새로운 양식으로 관련 연구에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공중사리비는 1694년 조성된 것으로 조선 중기 이후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공중사리탑, 사리장엄구와 함께 사리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물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사리장엄구 역시 인위적인 손상 없이 처음 매납된 상태 그대로 수습돼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특히 조선후기에 접어들 무렵까지도 사리비-금합-은합-동합의 순으로 매납용 사리기를 제작해 그 안에 사리를 안치하는 전통적인 사리 장엄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17세기 중·후반 경 활발한 조각활동을 펼친 조각승 윤해스님의 불상양식 연구와 윤희파 조각승의 조

각활동과 경향을 시기별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돼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이밖에도 <분류두공부시언해>권17~19, <제왕운기>, 현종가례진하도명, 박사의 초상, 김종직 종가 고문서 등도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 이상 관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 공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물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과 복장유물 등 5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718호로 지정된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과 복장유물은 조성시기와 조성주체 등이 정확히 기록돼 있어 조선 후기 불상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보물 제1719호로 지정된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복장유물은 조성에 참여한 석준 스님 등이 17세기 불교조각계의 첫 장을 열었던 조각승들로 불교조각의 양식과 유평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도 보물 제1720호에는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이, 보물 제1721호에는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보물 제1722호에는 총마계회도가 각각 지정됐다.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수록재 및 방생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우리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국운이 융창하기를 발원하고 경제가 하루 속히 회복되어 이 나라 이 땅위에 모든 국민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꽃 피우기 위하여 전국의 대한불교금강조계종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단 단체 수록재 및 방생 대법회를 봉행코져 합니다.

대한불교금강조계종 각 사암 주지스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동참하여 법좌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_ 불기 2555(2011)년 9월 25일 (음,8월28일) 일요일 오전 10시
- 장소 _ 포항 화진포 해수욕장
- 주최 _ 사단법인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총무원
- 후원 _ 중앙총의회 각 지방총무원 전국신도회
- 문의 _ 총무원 051)638-4088 / 총무부장 055)532-4414. 011-507-2837

사단법인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총무원장 법천 청화 합장

제4회 선운문화제

선운(禪雲), 아름다운 나눔공동체를 꿈꾸다

산사음악회
일시 2011년 9월 24일(토) 오후 7시
장소 선운사 특설무대

정윤스님, 링크, 고창농악보존회, 선운사합창단, 다문화전통공연

부대행사

- 보은염 이운식 : 9월 24일(토) 오후 6시, 검단마을~선운사 대웅전
- 학술대회(제4회 백파사상연구소 학술세미나) : 9월 25일(일) 오전 10시
- 제3회 선운청소년음악놀이경연대회 : 9월 25일(일) 오후 2시, 선운사 특설무대
- 선운명차 시음회 : 9월 24일~25일, 선운사 만세루
- 고창주민 나눔장터(보은염, 지역 특산물) : 9월 24일~25일, 선운사 일원
- 고창군민게이트볼대회 : 9월 26일(월), 오전 8시 30분, 고창읍 게이트볼장

일시 2011년 9월 24일(토)~25일(일) 장소 선운사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후원 고창군, BBS광주불교방송